

출장보고서

I. 출장개요

1. 출장자: 박영호 전문연구원
2. 출장기간: 2007.6.2-2007.6.7(5박6일)
3. 출장지: 알제리(수도: 알제, 사하라사막: 가르다이야)
4. 출장목적:
 - ☐ 한-알제리 정상회담(2006.3) 후속조치에 따른 양국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(민관합동 사절단의 일원으로 참가)
 - ※ 사절단(산자부 제1차관: 단장): 총58개 기관 및 업체(105명)
 - ☐ 알제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제개발계획의 이해 및 상호 협력가능 분야 발굴

II. 출장일정

일자	행선지	활동사항	비고
6/2(토)	알제시	한-알제리 T/F 합동만찬 참석	도착(6/2, 17:00)
6/3(일)	알제시	- 정부부처 방문(9:00-17:00) (산업부, 통상부, 소나트락) - 사절단 평가회의(19:00-21:00)	분과별(정책·무역·투자·IT) 활동
6/4(월)	알제시, 가르다이야	- 분과별 ROD 작성 및 보고회(오전) - 알제 → 가르다이야(오후) - 가르다이야 주지사 만찬 참석 저녁	분과별(정책·무역·투자·IT) 활동
6/5(화)	가르다이나, 엘 메니아	- 엘 메니아 농장시찰 및 주지사 오찬 - 엘 메니아 → 젤파나 - 젤파나 농장 방문 - 젤파나 주지사와 Wrap-up 미팅 및 만찬	
6/6(수)	가르다이야 → 서울	이동	6.7(목) 14:45 서울 도착

Ⅲ. 활동 내용

1. 분과(정책·무역·투자·IT) 활동사항

※ 정책·무역·투자·IT 분과는, 한국의 산자부 국장 등 13명과 알제리 민영화투자부 장관 비서실장 등 13명으로 구성

※ 기업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개선, 알제리 공무원 초청연수, 양국 중소기업 간의 협력투자사업 촉진, 알제리 정부부처 내에 한국기업 담당관 지정을 통한 기업애로요인 해소 등에 논의

☐ 알제리의 무역, 투자, IT 환경 설명

- 알제리측은 자국의 무역, 투자, IT 분야 환경에 대해 설명. 특히, 무역의 완전 자유화,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비차별성, IT 소프트웨어 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.

☐ 기업인에 대한 복수(장기) 비자발급 개선방안

- 양측은 양자 간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양국 기업인들에 대한 복수(장기) 비자 발급을 보다 원활히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.

- 양측은 동 문제와 관련, 금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한-알제리 공동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하기로 함.

☐ 알제리 정부 주요 부처 내 한국기업 담당관 지정

- 한국측은 알제리 민영화투자부, 에너지광물부, 국토환경부 등 주요 부처내에 한국기업의 대 알제리 투자 및 교류,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기업 담당관을 지정할 것을 요청.

- 양측은 양국 유관부처 내 한-알제리 협력업무담당관의 리스트를 상호 교환하기로 함.

□ 양국 공동협력기금

- 한국 정부는 양국 경제협력 기금으로 금년에 200만 불을 예산에 계상했으며,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알제리의 경제협력 기금마련도 필요하다고 언급.
- 이에 대해 알제리 정부는 금년 추경예산으로 200만 불을 계상할 계획인데 현재 국내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예산반영이 가능하다고 밝힘.

□ 산업정책 청서 컨설팅 사업

- 알제리 측은 제1차 및 2차 워크샵 개최결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.
- 양국은 산업발전 계획수립의 차질 없는 완료를 위해 서울에서 제3차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합의

□ 알제리 공무원 초청연수

- 양국 정부 간 우호증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국정부는 금년 하반기 20명씩 6회에 걸쳐 알제리 공무원을 초청하여 에너지, 자원, 건설 플랜트, 정보통신, 금융시장, 해외직접투자 등 6개 분야 주제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임.

□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, 투자사업 촉진

-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알제리 중소기업개발공사와 체결한 협력프로그램이 지연되고 있는 바, 알제리측을 대표하여 중소기업부의 장관 비서실장은 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로 약속.

□ 한-알제리 철강포럼 개최

- 양측은 철광석 개발 및 제철소 건설에 대한 협의를 위해 양국 정부대표, 관련단체 및 기업이 참여하는 철강포럼을 개최하기로 함.

□ 첨단기술 아프리카센터

- 알제리 측에서 제안한 첨단기술 아프리카 센터의 추진과 관련하여 금번에 한국산업기술대학에서 개략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분과별 회의에서 알제리 측에 설명
- 알제리 측은 이에 대해 알제리가 원하는 기본방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, 또한 아프리카 센터가 위치할 장소와 인프라 건설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서의 조속한 작성을 희망한다고 밝힘.
- 주요내용: 첨단기술, IT분야에서 정책마련, R&D, 교육, 산학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센터를 시디압텔라(신도시)에 건설
- 아프리카 센터는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아프리카국가들에 전파하여 알제리와 아프리카 산업에 적용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음.
- 아프리카 센터의 활동은 우선 정보통신기술 및 통신망, 소프트웨어개발 공학, e-서비스, 전자태그(RFID) 등에 집중하며 제2단계에서는 나노소재와 그 응용분야, 광자관련 마이크로 및 나노기술, 플라즈마와 그 응용분야, 레이저 기술 등에 주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.
- 양측은 양국정부 실무대표, 전문가 및 참여희망 기업들로 구성된 '아프리카 센터 기획위원회'를 7월 말까지 구성하고, 동 센터 설립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작성하는데 동의.

2. 사하라 사막 방문(사하라 개발프로젝트)

- 사하라 개발프로젝트는 사하라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프로젝트로 한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고 피력
- 구체적으로는 사하라 북부 가르다이야주 엘메니아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

여 약 9만 ha의 규모의 농장과 농촌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.

- 가르다이야주 젤파나 지역에도 1만 ha 규모의 농장과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.

□ 가르다이야주에는 옥수수 등 바이오 에너지용 작물을 재배하여 바이오 연료 생산기지로 활용한다는 개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의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음.

- 동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알제리는 국토균형개발, 사하라지역의 관광자원화, 알제리내 농업생산의 확대, 미래 자원인 바이오 에너지 확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할 것임.

□ 동 사업의 성사를 위해 한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.

- 한국 측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알제리 정부에 제출하면, 알제리 정부는 이를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을 승인하는 양국 간 전략적 경제협력의 틀 안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.

□ 한국은 합의의사록(ROD)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,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권소시업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힘.

- 한국은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2007년 10월 말까지 기본계획(Action Plan)을 알제리 측에 제출할 예정.

3. 종합 평가

□ 금번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는바, 알제리 측은 작년 회의에 비해 조직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음.

- 금번 회의를 통해 양국 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느꼈음.

□ 알제리 측은 한국정부의 협력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음.

- 알제리 정부는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한국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임.

□ 사하라 프로젝트의 경우, 알제리 측은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크게 환영의 뜻을 표하고 조속한 실현을 희망하고 있음.

□ 알제리 측은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기술지원 등을 바라고 있음. - 끝 -